

양육사회화 가치관 변화의 연령, 기간, 세대 효과: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중심으로

정선영*

본 연구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자질인 양육사회화 가치관이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연령, 기간, 세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의 2차-7차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아이들이 집에서 배워야 할 항목으로 선택된 최대 다섯 가지 가치 중 자율에 해당하는 가치(예: 독립심, 책임감)의 개수에서 권위에 해당하는 가치(예: 근면, 절약)의 개수를 뺀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은 연령증가와 함께 낮아졌다. 둘째,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가 높았으며 2000년대에 비해 2018년도에 높았다. 셋째, IMF세대의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은 전쟁세대나 산업화세대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X세대는 산업화세대나 민주화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보였다. 연구를 통해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자율과 권위에 포함되지 않은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 양육사회화 가치와 실제 부모 양육행동의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양육사회화 가치, 세계가치관조사, 연령효과, 기간효과, 세대효과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sunyjung@gmail.com

I. 서론

가치는 개인에게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목표나 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Schwartz, 2010). 모든 가치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으나(Schwartz & Bardi, 2001), 특히 양육사회화 가치(parental socialization values)는 사회의 가치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Fjellvang, 2011). 양육사회화 가치는 일명 자녀양육 가치(child-rearing values)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자질을 의미하며 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징을 결정짓는 준거 혹은 기준이 된다(Kohn, 1969).

양육사회화 가치는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데(Nomaguchi & Milkie, 2019), 미국의 중산층 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self-direction)를 강조한다는 Kohn(1969)의 선구적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계층을 넘어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로 구별되는 문화권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사회화 가치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예: Baer, Curtis, Grabb, & Johnston, 1996; Harwood, Schoelmerich, Ventura-Cook, Schulze, & Wilson, 1996).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 양육사회화 가치가 단순하게 이분화되지 않는 양상이 보고되기도 하는데(예: Wang & Tamis-LeMonda, 2003) 이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사회에는 기존의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사회는 경제사회적 역동성으로 인해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 평가받고 있다(Inglehart & Welzel, 2005). 이로 인해 양육사회화 가치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국내의 양육사회화 관련 연구는 양육신념(예: 김미숙, 신소희, 2019; 김유정, 박금이, 오단니, 안선희, 2017), 자녀양육관(예: 김선주, 2017), 자녀가치관(예: 강유진, 2020) 등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사회화 가치를 수십 년간 수집해 오고 있는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urvey),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WVS]), 미국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등의 양육사회화 가치 척도와 달라 기존 연구와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척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부터 40년간 수집되고 있는 세계가치관조사(WV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령 효과(age effect), 기간 효과(period effect), 세대 효과(cohort effect)의 틀을 적용하였다. 연령 효과는 각 가치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응답자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앙심이나 순종과 같이 전통적 가치는 연령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독립심이나 상상력과 같이 자율성과 관련된 가치는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win, 1990, 1996). 기간 효과는 시대 상황에 따라 특정 가치관과

태도가 우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허석재, 2017). 1950년대 이후 아동에게 강조되는 가치로 동조, 순종의 중요도는 떨어지는 반면에 독립심, 자율성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관찰된 바 있다(Alwin, 1990). 국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육사회화 가치에서도 연령 효과와 기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세대 효과는 특정 가치관을 가진 나이든 세대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로 교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Mannheim, 1952).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발달단계에 그 사건을 겪었는지가 집합기억의 세대 간 차이를 가져오는데, 세대는 주요 발달기에 경험한 사회적·역사적 사건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허석재, 2017). WVS를 이용하여 10개국의 복지태도 변화를 분석한 조남경(2017)은 우리나라의 1975년 이후 출생집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라는 비일관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같은 자료를 분석한 허석재(2017)는 우리나라의 진보 대 보수 가치관 변화에 세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에 세대효과가 있을지 만약 있다면 어떤 방향일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양육사회화 가치는 양육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매개하여 다음 세대의 발달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¹⁾ 가치관의 사회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기도 한다는 점에서(Dinas, 2014), 양육사회화 가치를 살펴보는 것은 현 상황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사회화 가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둘째,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령, 기간, 세대 효과는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1. 양육사회화 가치

Kohn(1969)은 사회 계층과 양육사회화 가치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개인은 직장생활을 통해 직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특질이 무엇인지 평가하게 되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질들은 자녀가 자신보다 나은

1) 양육사회화 가치는 가정 내 양육행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가령 권위를 중시하는 부모는 긍정적인 감정표현(예: 허그,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감정표현(예: 위협, 체벌)을 더 많이 보인다(Conger et al., 1984).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화와 교육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주입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산층 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를 강조하는 반면에 노동자 계층 부모는 복종을 중요시 여기는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라 아이가 다르게 양육되는 현실을 밝힌 Kohn(1969)의 연구는 이후 문화권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장된다. 선진국 반열에 든 나라의 성인들은 독립심, 근면, 리더십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예: Baer et al., 1996),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로 구별되는 문화권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사회화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wood et al., 1996). 그러나 문화권에 따라 양육사회화 가치가 단순히 이분화되지 않는 양상이 보고되기도 하였는데(예: Wang & Tamis-Lemonda, 2003), 이는 이데올로기,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큰 변화를 겪는 사회는 기존의 가치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육사회화 가치의 집단 내 동질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국가간 혹은 문화권간 차이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는 데에서 기인한다(Wang & Tamis-Lemonda, 2003).

양육사회화 가치를 다룬 연구들은 Kohn(1969)의 선구적 연구가 적용한 양육사회화 가치 분류를 따라 대부분 권위 대 자율성을 양극단으로 하는 차원의 양육사회화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Alwin, 2001). WVS를 비롯하여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urvey), 미국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등과 같은 사회조사는 권위 대 자율성을 포함한 다양한 양육사회화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Inglehart(1998)의 가치관 분류에 따르면 자율성에 해당하는 가치로 독립심, 책임감, 상상력 등이, 권위에 해당하는 가치로 신앙심, 순종, 근면 등이 있다. 권위 대 자율성 차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동조(conformity) 대 자율성, 동조 대 자기주도, 순종 대 자율 차원 등도 양육사회화 가치를 분석한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Alwin, 2001).

양육사회화 가치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양육신념(예: 김미숙, 신소희, 2019; 김유정 등, 2017), 자녀양육관(예: 김선주, 2017), 자녀가치관(예: 강유진, 2020)과 같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양육사회화 가치와는 다른 측면의 양육 관련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김유정 등(2017)의 연구에 적용된 양육신념 척도는 ‘인성/지적 성취 강조’, ‘성숙/환경주의’, ‘개인/전체 강조’의 세 영역을 대상으로 양극단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강유진(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가치관은 정서적 자녀가치관(예: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과 도구적 자녀가치관(예: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을 측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측정하는 양육 관련 가치관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받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자질’을 의미하는 양육사회화 가치와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권위 대 자율성 차원에서 분석된 기존 양육사회화 가치 연구결과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일한 척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2. 가치 변화의 연령, 기간, 세대효과

1) 연령효과

본 연구는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효과(age effect), 기간 효과(period effect), 세대 효과(cohort effect)의 틀을 적용하였다. 연령 효과는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으로, 신앙심이나 순종과 같이 전통적 가치는 연령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독립심이나 상상력과 같이 자율성과 관련된 가치는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win, 1990, 1996). 세계가치관조사(WVS)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을 분석한 허석재(2017)의 연구는 기간과 세대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되는 연령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연령의 증가와 함께 양육사회화 가치로 자율성보다 권위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높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연령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세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횡단연구에서 ‘세대’를 연령효과와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가령, 정철희(2012)는 WVS의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년도에 따라 집단을 크게 1930년대 이전, 1940년대생, 1950년대생, 386세대, 1970년대 이후 출생한 N세대로 나누어 이념적 정체성을 구분하였는데 이들 집단간의 차이가 초기 청년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5차년도 조사 당시 이들의 연령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수화되는 연령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세대효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2) 기간효과

기간 효과는 시대 상황에 따라 특정 가치관과 태도가 우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허석재, 2017). 경제 발전은 문화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따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전통적 가치에서 세속적·이성적(secular-rational) 가치로 전환되고,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유와 개인의 웰빙과 같은 상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등장은 생존 가치에서 자기표현 가치의 추구로 가치관의 변화를 촉진한다고 하였다(Inglehart & Welzel, 2010). WVS를 이용하여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한 정선영(2021)의 연구는 연령과 세대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전통적 성역할관에 대한 동의수준이 2010년을 기점으로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점을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양육사회화 가치에서도 권위보다 자율성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최근 10년 들어 더욱 강해졌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192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양육사회화 가치의 강조는 복종에서 자율로 이동하였지만(Inglehart & Welzel, 2010),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양육사회화 가치를 분석한 Nomaguchi와 Milkie의 연구(2019)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근면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높아진 반면 자율성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였

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에서도 사회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2000년대 이후 양육사회화 가치로 자율성보다 권위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세대효과

세대 효과는 특정 가치관을 가진 나이는 세대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젊은 세대로 교체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Mannheim, 1952). 세대간 차이를 가져오는 집합기억이 형성되는 주요 발달기로 Mannheim(1952)은 학교, 군대, 직장 등의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적 힘에 노출되는 시기인 17세부터 25세 까지를, Grasso(2014)는 15세부터 20대 중후반까지를 고려하였으며, Schuman과 Scott(1989)은 실증 연구를 통해 동일 세대에 속한 개인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형성된 고유의 집합기억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치관 변화의 세대 효과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진보 대 보수 차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영국 사회태도(British Social Attitudes) 자료를 분석한 연구(Grasso, Farrall, Gray, Hay, & Jennings, 2017)는 대처의 보수정권 하에서 초기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1959-1976년생)에 비해 블레어 진보정권 하에서 초기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1977-1990년생)가 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상과 다른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주요 발달기에 노출된 사회적·역사적 사건의 영향력보다 앞 세대의 가치관이 이후 세대에게 전달되는 사회화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Dinas, 2014; Grasso et al., 2017).

WVS를 분석한 허석재(2017)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진보 대 보수 가치관 변화에 연령과 기간 효과는 있었으나 세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역동적인 한국사회에서 초기 청년기의 경험이 평생 지속되기 보다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재사회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에, 1998년 이후 수집된 한국 사회조사를 분석한 Lee(2019)의 연구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문항에 대해 다른 세대에 비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의 동의수준이 가장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결혼 관에 있어서는 세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로 인해 우리나라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에서 세대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만약에 세대 효과가 있다면 각 세대의 권위 혹은 자율성 선호 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세대를 측정하기 위한 세대간 경계 설정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 오대혁, 김학조, 권종욱(2011)은 약 10년 주기로 세대를 구분하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세대는 1955-1964년생, X세대는 1965-1976년생으로 구분하였다. 조남경(2017)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1945년까지의 세계대전 경험 세대,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전후/냉전1 세대, 1956년부터 1965년까지의 베이비붐/냉전2 세대, 1966년부터 1975년까지의 탈냉전/X세대, 1975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Y세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허석재(2017)는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세

대를 구분하였는데, 예를 들어, 산업화 세대는 1951-1960년생, 민주화 세대는 1961-1970년생, X세대는 1971-1980년생이 해당된다. 은석, 안승재, 함선유, 홍백의(2018)는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결정적 집단 경험’을 이용하여 세대를 구분하였는데, 국내외 정치 상황 경험과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를 유신 세대, 1962년생부터 1971년생까지를 386 세대, 1972년생부터 1982년생까지를 IMF 세대, 1983년생부터 88만원 세대로 구분한 바 있다.

각 세대는 주요 발달기의 경험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한국전쟁, 빈곤,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을 아동기에 경험한 1940년대생 전쟁 세대는 1950년대에 출생한 산업화 세대와 함께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은 세대이다. 1960년대에 출생한 민주화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유해진 사회와 대학교육을 경험한 첫 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경향이 있으며, 1970년대에 출생한 X세대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변영의 혜택을 누린 세대로 초기 청년기에 해외여행과 유학을 경험한 세대라는 특징을 보인다(Lee, 2019). 이러한 경험 차이로 인해 각 세대는 다음 세대가 자신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서도 차이를 보이리라 짐작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1981년도 1차년도를 시작으로 현재 7차년도까지 수집된 WVS는 만 18세 이상 성인 1,200명 이상을 비패널 층화표집하여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1차년도에 10개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7차년도에는 80개국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021년 현재 7차년도 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1차년도부터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5년마다 자료수집을 계획하고 있으나 매차수 자료 수집에 4-6년이 소요되고 있어 정확하게 5년 간격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같은 차수라고 하더라도 국가별 자료수집 시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7차년도 자료는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수집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조사가 2018년도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WVS 자료 중 2차년도(N=1,251)부터 7차년도(N=1,245)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²⁾. 각 조사차수별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1차년도 자료는 양육사회화 가치는 수집되어 있으나 통제변인으로 투입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결측치가 많아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연구변인

1) 양육사회화 가치: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본 연구는 Kohn(1969)의 초기 연구 이후 양육사회화 가치를 분석한 연구들이 적용하고 있는 권위 대비 자율성 차원을 이용하였다. WVS는 응답자들에게 Inglehart(1998)의 가치관 분류에 기초한 15개 내외의 가치들을 제시하며 아이들이 집에서 배워야 할 항목으로 최대 다섯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³⁾. 15개의 가치 중 권위에 해당하는 가치는 근면(hard work), 절약(saving money or things), 신앙심(religious faith), 순종(obedience)의 4개 문항이며, 자율성에 해당하는 가치는 독립심(independence), 책임감(feeling of responsibility), 상상력(imagination), 결단력(determination)의 4개 문항이다(Alwin, 2001; Voicu, 2016). 가치의 선택여부에 따라 1(선택되었음)과 0(선택되지 않음)의 값을 부여한 후 해당 가치의 권위 혹은 자율성 소속에 따라 선택된 가치들의 값을 합산하여 각각 권위 수준(총점 0-4점)과 자율성 수준(총점 0-4)을 구성하였다.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는 자율성 수준에서 권위 수준을 빼서 산출하였다.

2) 연령, 기간, 세대

연령은 각 조사차수의 연도에서 응답자의 출생년도를 빼서 작성하였다. 예를 들어, 2차년도인 1990년도에 응답한 응답자의 출생년도가 1963년인 경우, 이 응답자의 2차년도 연령은 27세이다. 기간은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년도를 의미한다. 2차년도의 기간은 1990년, 3차년도의 기간은 1996년, 4차년도의 기간은 2001년, 5차년도의 기간은 2005년, 6차년도의 기간은 2010년, 7차년도의 기간은 2018년이다. 각 기간은 더미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본 연구는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한 허석재(2017)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대가 공유하는 집합적 기억을 적절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단위로 세대를 규정하여 분석에 포함되는 세대별 인원의 규모도 동질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1950년 이전 출생한 코호트를 ‘전쟁세대’, 1951-1960년생을 ‘산업화세대’, 1961-1970년생을 ‘민주화세대’, 1971-1980년생을 ‘X세대’, 1981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를 ‘IMF세대’로 명명하였다.

3) 통제변인

본 연구는 연령, 기간, 세대 외에 양육사회화 가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소득, 결혼지위를 고려하여 통제하였다.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에서는 여성이 더 진보적 성향을 보인다

3) 조사년도에 따라 제시되는 자녀양육가치에 차이가 있다. 가령, 자기표현(self-expression)은 6차년도에만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권위와 자율성에 해당하는 8개 가치는 1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는 점에서(은석 등, 2018; Lee, 2019) 응답자의 성별을 통제하였으며, ‘남성(=1)’과 ‘여성(=0)’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자유주의적인 태도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Phelan, Link, Stueve, & Moore, 1995), 본 연구는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대학졸업 이상(=1)’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0)’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중요하게 여기는 양육사회화 가치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데, 노동자 계층은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중산층 이상은 독립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jellvang, 2011; Sherman & Harris, 2012). 본 연구는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변인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을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WVS는 가구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가장 낮은 1점부터 가장 높은 10점까지 10단계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혼여부 및 부모여부에 따라 다른 자녀양육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Tudge et al., 2012)에서 결혼지위도 통제하였으며, 결혼했음, 동거, 사별, 이혼, 미혼의 다섯 범주로 측정되고 있는 결혼지위를 ‘결혼했음(=1)’과 ‘그 외(=0)’로 나누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는 자율성 수준(범위 0-4)과 권위 수준(범위 0-4)의 차이를 통해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를 측정하였는데, 응답자가 최대 다섯 개의 양육사회화 가치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모든 응답자가 다섯 개의 가치를 선택한 것은 아니며 5개 이내로 선택된 양육사회화 가치가 모두 자율성이나 권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의 값(= 자율성-권위)이 0이라고 하더라도 권위와 자율성 수준이 각각 0인 경우도 있고 각각 2인 경우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자율성 수준과 권위 수준의 합산을 통제변인에 투입함으로써 선택된 다섯 개의 양육사회화 가치 중 자율성 및 권위 가치가 선택된 수준을 동일하게 조절하였다.

3. 분석방법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의 변화를 설명하는 연령, 기간, 세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2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WVS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들이 선택한 권위, 자율성의 수준 및 주요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술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의 변화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연령과 기간에 따라 기술분석 하였다. 세대효과와 경우, 그래프를 통하여 연령과 기간에 따른 변화를 각각 살펴보았다. 셋째, 종속변인인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 독립변인인 연령, 기간(준거집단: 2018년), 세대(준거집단: IMF세대), 통제변인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간과 세대 효과의 경우, 회귀계수는 더미로 투입된 변인과 준거집단과의 차이를 보여줄 뿐 더미 변인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1990년 더미 변인의 회귀계수는 1990년과 준거집단인 2018년의 차이를 보여줄 뿐이며 1990년과 1996년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을 통해서 다중회귀분석

에 투입된 더미 변인간 차이의 유의성도 점검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tata SE 13.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2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주요 변인의 기술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절반에 해당되지만 남성의 비율이 약간 낮은 편이며, 1996년 이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응답자는 25%를 상회하고 있다. 주관적 소득수준의 평균은 1996년 이후 4.5 이상을 보이며, 연령의 평균은 지속적으로 1-2년씩 높아지고 있다. 자율성 수준의 평균은 2001년 이후 2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권위 수준의 평균은 1.5점 이상을 보이다가 2018년 1.2점으로 하락하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분석 결과

변인 (범위)	2차년도 1990	3차년도 1996	4차년도 2001	5차년도 2005	6차년도 2010	7차년도 2018
	N=1,251	N=1,247	N=1,200	N=1,200	N=1,200	N=1,245
	M(SD) or N(%)	M(SD) or N(%)	M(SD) or N(%)	M(SD) or N(%)	M(SD) or N(%)	M(SD) or N(%)
성별: 남성	586 (46.84)	612 (49.00)	604 (50.33)	598 (49.83)	592 (49.33)	607 (48.76)
학력: 대학졸업 이상	74 (5.92)	318 (25.46)	342 (28.50)	463 (38.58)	526 (43.83)	396 (31.81)
소득수준 (1-10)	3.70 (2.67)	5.68 (2.13)	4.79 (1.81)	4.88 (1.77)	5.01 (1.81)	4.84 (1.37)
결혼지위: 결혼했음	805 (64.35)	829 (66.37)	823 (68.58)	773 (64.42)	752 (62.67)	898 (72.13)
연령 (18-91)	37.36 (12.72)	38.15 (12.72)	39.24 (12.46)	41.38 (14.01)	43.17 (14.94)	45.63 (15.03)
자율성 (0-4)	1.82 (.77)	1.91 (.79)	2.46 (.86)	2.45 (.89)	2.18 (.82)	2.50 (.83)
권위 (0-4)	1.54 (.80)	1.59 (.74)	1.73 (.78)	1.77 (.78)	1.58 (.82)	1.20 (.7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 2> 참고), 주관적 소득수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r=-.08$, $p<.001$), 자율성 수준 및 권위 수준과 각각 정적 관계를 보였다(각각 $r=.12$, $p<.001$; $r=.03$, $p<.01$).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율성 수준은 낮아지며($r=-.10$, $p<.001$) 권위 수준은 높아졌다($r=.18$, $p<.001$). 자율성 수준과 권위 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39$, $p<.001$).

〈표 2〉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소득수준	연령	자율성
연령	-.08***		
자율성	.12***	-.10***	
권위	.03**	.18***	-.39***

*** $p < .001$, ** $p < .01$

2.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의 연령, 기간, 세대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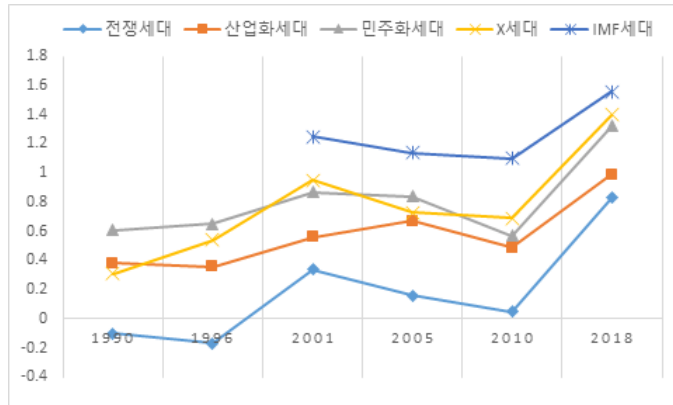
기간별 상단에서 하단으로의 이동은 연령대의 증가에 따른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보여주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권위 대비 자율성을 선호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의 25세 이하 집단은 평균 .60의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보였는데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선호 수준은 점점 낮아지다가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 -.32를 보였다.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이동은 기간에 따른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지속적으로 권위 대비 자율성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연령대에서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1990년 25세 이하 집단의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은 .60을 보이다가 2018년 1.90의 수준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60세 이상 집단의 선호 수준도 -.32에서 .91로 높아졌다.

〈표 3〉 양육사회화 가치의 변화: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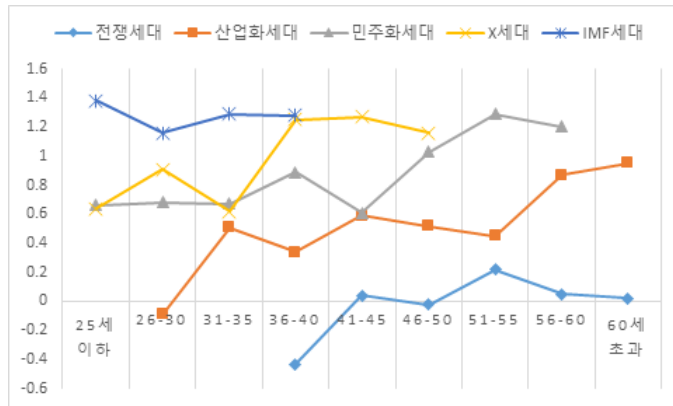
	1990	1996	2001	2005	2010	2018
25세 이하	.60	.54	.97	1.05	1.20	1.90
26-30	.51	.79	1.01	.83	.83	1.36
31-35	.52	.48	.83	.73	.52	1.29
36-40	.21	.46	.86	.91	.87	1.55
41-45	.07	.18	.73	.90	.44	1.27
46-50	-.07	.00	.45	.63	.60	1.34
51-55	.00	.09	.49	.41	.50	1.29
56-60	-.30	-.46	.45	.42	.38	1.07
60세 초과	-.32	-.65	-.05	.05	.03	.91

<그림 1>은 기간에 따른 세대 효과를 보여준다. 모든 세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은 전쟁세대에서도 발견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05년과 2010년에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2018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시간에 따른 세대간 차이

〈그림 2〉는 연령에 따른 세대 효과를 보여주는데, 세대별 패턴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쟁세대는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51-55세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이후 감소하였으며,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는 각각 56세 이후, 46세 이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X세대는 36세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IMF세대는 25세 이하였을 때부터 높은 수준의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

3.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의 연령, 기간, 세대 효과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의 연령, 기간, 세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아동에게 집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로 권위에 비해 자율성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았으며($B=.18, p<.001$), 초대졸 이상 학력 응답자는 고졸 이하 학력 응답자에 비해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높았다($B=.10, p<.05$). 그러나 응답자의 가구소득수준이나

혼인여부는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에게 집에서 가르쳐야 할 가치로 권위에 비해 자율성을 선호하는 수준이 낮았다($B=-.02, p<.001$).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표 4>는 준거집단인 IMF세대와 다른 세대는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는 <표 4>에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세대 간의 비교를 보여주는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는 X세대에 비해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간효과를 살펴보면, <표 4>는 2018년은 1990년($B=-1.16, p<.001$), 1996년($B=-1.14, p<.001$), 2001년($B=-.83, p<.001$), 2005년($B=-.82, p<.001$), 2010년($B=-.78, p<.001$)에 비해 권위에 비해 자율성을 선호하는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표 4>는 준거집단인 2018년과 각 시기를 비교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표 5>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시기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에 해당하는 두 기간(즉, 1990년과 1996년) 사이에는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에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2000년대에 해당하는 기간들(즉, 2001년, 2005년, 2010년)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해 2000년대에 해당하는 기간들은 유의하게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가, 2000년대에 비해 2018년도에 비해 유의하게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 양육사회화 가치 변화의 연령, 기간, 세대 효과: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B (S.E.)
성별: 남성 (vs. 여성)	0.18 (0.03)***
학력: 대학졸업 이상 (vs. 고등학교 졸업 이하)	0.10 (0.04)*
소득수준	0.01 (0.01)
결혼지위: 결혼했음 (vs. 그 외)	-0.05 (0.04)
연령	-0.02 (0.004)***
기간: 1990 (vs. 2018)	-1.16 (0.11)***
기간: 1996 (vs. 2018)	-1.14 (0.09)***
기간: 2001 (vs. 2018)	-0.83 (0.08)***
기간: 2005 (vs. 2018)	-0.82 (0.07)***
기간: 2010 (vs. 2018)	-0.78 (0.06)***
전쟁세대 (vs. IMF세대)	0.06 (0.18)
산업화세대 (vs. IMF세대)	0.19 (0.13)
민주화세대 (vs. IMF세대)	0.20 (0.10)
X세대 (vs. IMF세대)	-0.02 (0.08)
자율성 수준과 권위 수준의 합산	0.18 (0.02)***
Constant	1.42 (0.16)***
N	7,264
F	(15, 7248)=60.56***
Adjusted R-squared	.11

*** $p<.001$, ** $p<.01$, * $p<.05$

〈표 5〉 기간과 세대의 선형조합 결과

기간간 비교	Coef.	세대간 비교	Coef.
1990 - 1996	-.01	전쟁세대 - 민주화세대	-.14
1990 - 2001	-.33***	전쟁세대 - X세대	.09
1990 - 2005	-.34***	산업화세대 - 민주화세대	-.10
1990 - 2010	-.37***	산업화세대 - X세대	.21*
1996 - 2001	-.32***	민주화세대 - X세대	.22***
1996 - 2005	-.33***		
1996 - 2010	-.36***		
2001 - 2005	-.01		
2001 - 2010	-.04		
2005 - 2010	-.04		

*** $p < .001$, ** $p < .01$, * $p < .0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양육사회화 가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연령, 기간, 세대 효과에 의해 설명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WVS)의 한국인 응답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낮았다. 이는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권위와 관련된 가치는 연령과 정적 상관을 보이며 자율성과 관련된 가치는 연령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서구의 연구결과(Alwin, 1990, 1996)뿐만 아니라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화된다는 우리나라의 연구결과(허석재, 2017)와도 일치한다.

둘째, 1990년대에 비해서는 2000년대에, 2000년대에 비해서는 가장 최근 조사인 2018년에 유의하게 권위 대비 자율성 수준이 높았다. 1990년대 이후 약 10년 단위로 권위 대비 자율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본 연구결과는 경제발전과 세계화로 인해 사회구성원이 전통적 가치에 부여하는 중요도가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정선영, 2021; Inglehart & Welzel, 2010)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는 반면에 권위에 해당하는 가치인 근면에 대한 선호는 증가하였다는 Nomaguchi와 Milkie의 연구(2019)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와 반드시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권위에 해당하는 가치인 복종에 대한 중요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Nomaguchi와 Milkie의 연구(2019)가 분석하고 있는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는 가장 중요한 양육사회화 가치를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WVS에서처럼 최대 5개의 가치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황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셋째, 연령이 낮을수록 혹은 현재에 가까울수록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높아지는 위의 연구결과와 달리 세대 효과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연령과 기간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가장 최근에 등장한 IMF세대의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은 전쟁세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X세대와 차이가 없었다. 한편, X세대의 경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에 비해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낮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세대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결과에 대해 허석재(2017)는 한국 사회의 세대 담론은 복수의 시점에 걸친 실증 연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되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허석재(2017)의 연구에서 진보와 보수를 차원으로 하는 이념 변화에서 세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가치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성되며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주요 발달기인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고정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X세대가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에 비해 권위 대비 자율성 선호 수준이 낮은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앞서 소개된 Grasso 등(2017)의 연구를 통해 이해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세대 효과에 따르면 대처의 보수정권 하에서 초기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가 블레어의 진보정권 하에서 초기 청년기를 맞이한 세대에 비해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요 발달기에 형성된 기억보다 앞 세대의 가치관이 이후 세대에 전달되는 사회화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Dinas, 2014; Grasso et al., 2017). 이는 본 연구에서 X세대가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의 양육사회화 가치에 노출되어 사회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X세대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는 은석 등(2018)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자녀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X세대⁴⁾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는데, 연구자들은 외환위기로 인해 부모 세대의 실패를 초기 성년기에 목격한 X세대가 부모 부양의 의무를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X세대가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경험한 세대일 뿐만 아니라 외환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정을 초기 청년기에 경험한 세대라는 점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양육사회화 가치가 근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회귀하였듯이(Nomaguchi & Milkie, 2019) 여러 세대 가운데 권위 중시 양육사회화 가치로 일시적으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바람직한 특징을 결정짓는 준거가 되는 양육사회화 가치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혹은 현재에 가까울수록 양육사회화 가치로 권위에 비해 자율성을 선호하는 수준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4) 은석 등(2018)의 연구에서는 1972~1982년생을 IMF 세대라고 명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이 시기는 X세대에 해당한다.

성인들이 다음 세대가 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이 ‘자율성’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생활을 통해 이러한 특질을 발견한다는 Kohn(1969)의 주장은 직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육사회화 가치는 가정 내 양육행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Conger et al., 1984)은 급격한 변화를 겪는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양육받았던 행동과는 차이가 있는 양육사회화 가치를 추구하며 부모로서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중장년층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양육사회화 가치를 탐색하는 차원에서 기존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권위와 자율 차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예절, 자기표현과 같이 응답자가 양육사회화 가치로 선택하였으나 분석에는 사용되지 않은 가치도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응답자는 자율성, 순종과 같은 가치보다는 예의범절, 타인 존중과 같은 가치를 더 자주 언급한다는 연구결과(Halman, Sieben, & Van Zundert, 2011)를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WVS에서 조사되고 있는 양육사회화 가치를 권위와 자율의 군집으로 다루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사회화 가치가 사회적 가치를 재생산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제를 통해 다음 세대 혹은 자녀 세대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양육사회화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처럼 각 세대는 경험하는 역사적 사건에 따라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부모 세대의 양육사회화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모 세대의 가치가 자녀 세대의 가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를 밝히고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 이 기제의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진 (2020). 무자녀와 한자녀 여성의 출산계획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가치관과 부부평등성 요인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4(3), 3-26.
- 김미숙, 신소희 (2019).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자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9(1), 87-99.
- 김선주 (2017). 여대생의 부모됨 동기 및 자녀 양육관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1(6), 529-564.
- 김유정, 박금이, 오단니, 안선희 (2017).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교육가치관과 조기 사교육 이용 실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145-155.
- 오대혁, 김학조, 권종욱 (2011). 한국과 중국종업원의 세대 간 직무가치관 분석. <국제통상연구>, 16(1), 103-128.
- 은석, 안승재, 함선유, 홍백의 (2018).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8(1), 41-74.
- 정선영 (2021). 가족가치관 변화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부모의 기대충족과 전통적 성역할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1), 55-79.
- 정철희 (2012). 엔세대의 신좌파적 정체성. <사회과학연구>, 51(1), 1-21.
- 조남경 (2017).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연령효과와 분리된 코호트 효과와 그 요인의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245-275.
- 허석재 (2017). 세대와 생애주기에 따른 이념 변화: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자료분석 (1990-2010). <한국정치학회보>, 51(1), 181-205.
- Alwin, D. F. (1996). Parental soci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C. D. Ryff, & M. Mailick Seltzer (Eds.), *The parental experience in midlif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lwin, D. F. (2001). Parental values, beliefs, and behavior: A review and promulga for research into the new century.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6, 97-139.
- Alwin, D. F. (1990). Historical changes in parental orientation to children. *Sociological Studies in Child Development*, 3, 65-86.
- Baer, D., Curtis, J., Grabb, E., & Johnston, W. (1996). What values do people prefer in children? A comparative analysis of survey evidence from fifteen countries. In C. Seligman, J. M. Olson, & M. P. Zanna (Eds.), *The psychology of value: The Ontario Symposium* (vol. 8, pp. 299-328).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nger, R. D., McCarty, J. A., Yang, R. K., Lahey, B. 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6), 2234-2247.

- Dinas, E. (2014). Why does the apple fall far from the tree? How early political socialization prompts parent-child dissimilari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827-852.
- Fjellvang, T. (2011). Socialization values, cultural-religious zones and modernization theor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7(2), 196-211.
- Grasso, M. T. (2014). Age-period-cohort analysis in a comparative context: Political genera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epertoires. *Electoral Studies*, 33, 63-76.
- Grasso, M. T., Farrall, S., Gray, E., Hay, C., & Jennings, W. (2017). Thatcher's children, Blair's babies, political socialisation and trickle-down value-change: An age, period and cohort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1), 1-20.
- Halman, L., Sieben, I., & Van Zundert, M. (2011). *Atlas of European values: Trends and traditions at the turn of the century*. Leiden: Brill.
- Harwood, R. L., Schoelmerich, A., Ventura-Cook, E., Schulze, P. A., & Wilson, S. P. (1996). Culture and class influences on Anglo and Puerto Rican mothers' beliefs regarding long-term socialization goals and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446-2461.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 Welzel, C. (2010). Changing mass priorities: The link between modernization and democracy. *Perspectives on Politics*, 8, 551-567.
- Inglehart, R., Basanez, M., & Moreno, A. (1998). *Human values and beliefs: A cross-cultural sourcebook*.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Press.
- Kohn, M.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Lee, Y. (2019). Cohort differences in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South Korea, 1998-2014: An age-period-cohort-detrended model. *Asian Population Studies*, 15(3), 266-281.
- Mannheim, K. (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p. 163-195). London: RKP. (First published 1923)
- Nomaguchi, K., & Milkie, M. (2019). What should children learn? American's changing socialization values, 1986-2018. *Socius: Sociological Research for a Dynamic World*, 5, 1-17.
-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59-381.
- Schwartz, S. H. (2010). Basic values: How they motivate and inhibit prosocial behaviour. In M. Mikulincer, & R. Phillip (Eds.), *Prosocial motives, emotions, and behavior: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 (pp. 221-24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chwartz, S. H., & Bardi, A. (2001). Value hierarchies across cultures: Taking a similarities perspecti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 268-290.

- Sherman, J., & Harris, E. (2012). Social class and parenting: Classic debates and new understandings. *Social Compass*, 6(1), 60-71.
- Tudge, J. R. H., Lopes, R. S. C., Piccinini, C. A., Sperb, T. M., Chipenda-Dansokho, S., Freitas, L. B. L. (2012). Child-rearing values in Southern Brazil: Mutual influences of social class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34(10), 1379-1400.
- Voicu, B. (2016). Measuring child-rearing values: A research note. *Social Change Review*, 10(1), 47-70.
- Wang, S., & Tamis-Lemonda, C. (2003). Do child-rearing values i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reflect cultural values of collectivism and individual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6), 629-642.
- World Values Survey. (2020). *All rounds- country-pooled datafile. Madrid, Spain & Vienna, Austria: JD Systems Institute & WWSA Secretariat* [Version: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L.jsp>].

Abstract

The Effects of Age, Periods, and Cohorts in the Changes of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Sun Young Jung*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of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which are believed to be taught by parents, during the last 30 years in the Korean society and analyzed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influencing those changes. It analyzed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2nd to 7th waves. The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were yield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selected authority-related values (e.g. hard work, saving money or things) from the number of selected autonomy-related values (e.g. independence, feelings of responsibility) and named as 'preference of autonomy above authority [PA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PAA got lower with the increase of age. Second, the levels of PAA were higher in 2000s compared with 1990s, and in 2018 compared with 2000s. Third, the PAA levels of IMF generation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war and industrialization generations. Moreover, X generation showed lower levels of PAA compared with industrial and democratization generations. In the future study,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and actual parenting behaviors need to be examined to extend understanding on the mechanism through which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affect children.

Key words: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World Values Survey, Age Effect, Period Effects, Cohort Effects

*Department of Social Work, I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yjung@gmail.com